

# 누구를 위한 마지막 문장인가



서 선 미 역  
기후에세이

뛰어난 첫 문장이 있다. “역사가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이민진 작가의 소설 『파친코』는 이 문장으로 시작한다. 마지막 장을 덮으면 이 문장은 이렇게 읽힌다. “우리는 우리를 저버린 역사를 관통해 끝 끝내 살아남았다. 삶을 버텨낸 것은 역사를 만든 거창한 인물들이 아니라 낱알의 평범한 사람들이다.”

민주당 지도부 선거로 정치의 장이 뜨겁다. 선명한 의제로 시대의 리더임을 알려 뜨거운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하하고 공격하는 그 자극적인 뜨거움이다. 당혹스럽다. 낱카로운 말들은 상대 후보를 겨누고 있지만 정작 상처받는 이는 유권자인 국민이다. 혐오의 시대가 또 다른 혐오를 부르고 있다.

혐오의 연쇄 시대이다. 혐오를 견어내야 할 리더들의 장인 정당도 예외는 아니다. 혐오의 커튼이 여당과 야당이 자리한 국회의 모든 창을 단단하게 감싸고 있다. 정치가 보여주는 혐오는 『파친코』의 첫 문장에서 역사가 그러했듯이 우리를 저버리고 있다. “상관없다”고 말하며 내 삶을 살아가려 오

이 애써보지만, 그 삶마저 그들이 그어놓은 역사의 확들에 의해 뭉개지거나 지워지기도 한다.

그들 말의 본질은 날카롭지 않다. 고작해야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언어일 뿐이다. 그런데 그들은 본론인 말꼬리 잡기 싸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같이 의제를 던지며, 자신이 이를 이끌 리더라고 주장한다. 미래 의제는 혐오와 비방으로 들어가기 위한 프롤로그다. 저출생과 인공지능(AI)시대, 그리고 기후 위기가 그들의 첫 문장에 오르고 있다. 이 시대 리더가 되겠다는 이들이 제시한 ‘해결 과제 목록’에 기후 위기는 빠지지 않는다. 누구나 기후 위기를 말하는 시대다.

최근 한 언론은 22대 국회의원들이 등록한 자신 명의 차량 221대 중 214대가 내연기관차라고 보도했다. 무공해 차량은 3.2%에 불과했다.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 중 차량이 확인된 10명 역시 모두 내연기관차를 타고 있었다. 그들에게 기후 위기는 단순히 자신을 좋게 포장하는 라벨 정도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선자가 가방을 집어 들었다. 경희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소설 『파친코』의 마지막 문장이다. 선자가 일본 경찰에 의해 생사를 달린 남편 묘소를 떠나 당도할 곳은 경희와 함께 살아가는 집이다. 경희는 선자가 오사카로 건너 온 이후 온 생을 함께

한 동반자다. 그이와의 우정, 연대가 없었다면 선자는 그 가혹한 삶을 지나기 힘들었을 것이다. 역사는 선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지만, 사랑과 우정이 있어 강인한 회복력으로 역사를 관통했다. 이처럼 낱알의 사람들이 써 내려간 마지막 문장은 여전히 품격 있게 자신에게로 향한다. 온 생애가 그랬듯 묵묵히 일어나 집으로 향한다.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는다. 역사는 거대한 톱니바퀴 앞에서 개인들은 힘을 다해 살아내고 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고통이 몇 겹으로 포개어진 일상을 감싸안으며 긴 호흡을 내쉴다.

누가 뽑히든 우리는 살아낼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역사를 앞장서 만들어가는 리더를 자처한다면 품격 있는 정치의 문장을 엮어내야 하지 않을까?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으로 첫발을 디뎠을 때 그들의 첫 문장은 웅대하고 정의로웠지만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반쯤 거짓이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문장이다. 그들은 그 문장을 향해 펜을 들고 있다. 그 마지막 문장은 지켜내지 못한 언어들에 대한 참회록이자, 미처 해결하지 못한 당면 과제들을 담은 성찰이어야 한다. 기후 위기가 거기 있어야 한다. 최소한 지금까지 서슬 퍼르고 자가당착에 빠진 문장이 아니길 바란다. /서선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 카드사 호실적이 개운치 않은 이유



기지 수첩  
안 재 선  
(금융부)

“이제 비용도 어디서 더 줄여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내 7개 주요 카드사(삼성·신한·KB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카드)의 상반기 당기 순이익은 총 1조2531억원이다. 전년 동기(1조1577억원)보다 8.2% 증가했다. 카드사들의 순익 증가를 묻는 말에 한 업계 관계자는 비용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지표만 봐도 카드사들의 비용 감소가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신한카드의 상반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전년 동기(5097억원)에서 올해 4721억원으로 7.4% 감소했다. KB국민

카드도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이 같은 기간 4188억원에서 3936억원으로 6.0% 줄었다.

중소형 카드사도 다르지 않다. 롯데카드는 영업비용을 전년 동기 대비 4.5% 감축했다. 하나카드는 상반기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이 전년 동기(1785억원) 대비 약 85억원(4.8%) 줄여 비용을 덜어냈다. 우리카드 대손비용도 전년 대비 98억원 줄었다.

연체율이 소폭 개선세를 보이며 리스크 관리 능력을 입증한 측면은 분명 긍정적이다. 다만, 영업수익 증가 폭이 비용 감축 폭을 앞지른 곳은 거의 없다.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 구조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 비용을 아끼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하반기 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까지 오르면 비용 줄이기로 순익을 방어할 수 있는 기간은 더 짧아진다. 순이익이 증가해도 카드사들이 축적 분위기를 잃

는 이유다.

비용 절감이 한계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 카드 산업은 성장 동력을 잃고, 잠재 부실 위험에 빠지게 된다. 해자카드를 단종하면서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고객 이탈 가능성이 확대된다. 충당금을 덜 쌓으며 버티다가 경기 악화 등으로 연체가 급증할 경우에는 잠재된 부실을 받아낼 완충력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본업 경쟁력의 정체를 무겁게 직시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각종 규제를 거둬내고 카드사들이 장기적으로 순익을 낼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 카드사는 반짝 실적에 안주하기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빅테크 공세 속에서 카드업의 존립 기반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wotjs4187@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8일 (음 7월 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잠시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60년생 재능을 알아줄 사람을 만납니다. 72년생 운이 잘 풀리는 하루입니다. 84년생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자꾸 배워야 합니다.



49년생 금전운 이성운, 모두 조심하세요. 61년생 순탄한 하루입니다. 73년생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세요. 85년생 종교를 믿으면 좋을 듯. 믿음은 간직하도록 하세요.



50년생 마음을 편안히 가지세요. 62년생 계획대로 밀고 나가면 이룰 수 있습니다. 74년생 잊사름을 말을 잘 따르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86년생 대체로 무난한 평온한 하루입니다.



51년생 긍정적인 생각이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63년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75년생 여행이나 출장은 되도록 피하세요. 87년생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52년생 기본전환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64년생 사업은 손해 볼 수 있으니 충분히 검토하세요. 76년생 먼저 사과하면 더욱 좋습니다. 88년생 큰 성과가 있으니 집중력을 갖고 노력하세요.



53년생 뜻하지 않은 조짐이 있으나 자리잡는 과정입니다. 65년생 주변 움직임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세요. 77년생 바쁘게 움직이나 소득은 없습니다. 89년생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됩니다.



54년생 얹지른 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66년생 반가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하루입니다. 78년생 상사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90년생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좋습니다



55년생 피하지 말고 정면승부가 필요합니다. 67년생 행동보다는 계획을 잘 세우는 게 먼저입니다. 79년생 밝고 따뜻한 색과 함께 하면 행운이 있습니다. 91년생 금전운이 좋습니다.



56년생 당장은 힘이 들더라도 어려운 쪽을 선택하세요. 68년생 아랫사람보다 뒷사람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80년생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92년생 겸손해야 안 좋은 일을 면합니다.



57년생 모나지 않게 행동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69년생 일은 많은데 손은 부족합니다. 81년생 한가지 일에만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93년생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관계가 좋습니다.



58년생 일관되게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70년생 상황은 좋지 않지만 주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82년생 주변 사람이 잘 도와주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94년생 이동수가 있습니다.



59년생 빠른 결정보다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71년생 많은 변화 속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83년생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결과가 좋습니다. 95년생 일보다는 마음 편히 쉬는 게 좋습니다.



## 김상회의四季 늘 새로운 백중

필자는 8월에는 백중 회향일이 되는 음력 7월 보름이 돌아오기에 첫 일요일 법회와 백중 회향법회가 함께 열리는 달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한국의 불자들은 대부분 천년 고찰을 포함하여 여러 절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이 많은지라 월광사의 법회 시스템을 이해하고 잘 따라주신다. 올 병오년 백중재를 회향하면서 상황이 되는 신도들은 꼭 칠재일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의 편한한 시간에 와서, 또는 집에서라도 일주일에 한 편씩 지장경이나 아미타경 또는 금강경을 읽을 것을 신도들에게 당부하였다. 지장경의 경우, 워낙 길이가 길므로 하루에 두 편 정도씩 나누어서 읽는다면 일주일에 한 편은 무리 없이 독송할 수 있다. 금강경이나 아미타경은 상대적으로 길이가 좀 짧으니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한 편 또는 세편 정도 읽어도 무방하리라.

해마다 매년 돌아오는 백중이지만 늘 새롭다. 사람들은 묻는다. 무슨 천도재를 그렇게 매년마다 지내요? 라며. 중생들은 각기 없이 다르다. 49일 동안의 중음이 끝나고 육도윤회에 접어들기도 하지만 혹여 육도 중 악처에 속하는 4악처에 떨어진 인연 영가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왜냐하면, 석가모니가 말씀하였듯 다시 사람 몸을 받을 확률은 저 대지의 흙보다도 작은 손톱 위의 흠만큼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마음이 미칠 때마다는 못할지언정 1년에 한 번 지옥문이 열린다는 백중일에 조상 및 인연 영가들의 천도를 발원하는 것은 후손의 당연한 도리이다. 재를 올리는功德의 칠분의 일은 선망 조상님들께 나머지 7분의 6은 재를 올리는 후손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이니 굳이 지장경 ‘이익존팔품’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각자가 세운 발원이나 서원만큼 실천하면 좋은 일이다. 비록 친족연속이 아닐지라도 모든 유주무주 고혼의 천도를 기원하는 것은 복된 일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   |   |   |   |   |   |   |   |   |
|---|---|---|---|---|---|---|---|---|
| 4 | 6 | 8 |   |   | 5 |   |   |   |
|   |   |   | 1 |   |   | 8 | 2 |   |
|   |   |   |   |   |   |   |   | 4 |
|   | 4 |   | 7 | 8 |   | 1 |   |   |
| 3 |   |   |   |   |   |   |   | 7 |
|   |   | 7 |   | 1 | 4 |   | 6 |   |
| 9 |   |   |   |   |   |   |   |   |
|   | 1 | 5 |   |   | 2 |   |   |   |
|   |   |   | 6 |   |   | 3 | 8 | 5 |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   |   |   |   |   |   |   |   |   |
|---|---|---|---|---|---|---|---|---|
| 4 | 5 |   | 7 |   |   | 8 |   | 6 |
|   |   |   |   |   |   | 1 |   |   |
|   | 6 |   |   |   | 3 |   |   |   |
|   |   | 6 | 3 | 9 |   |   | 2 |   |
| 3 |   |   |   |   |   |   |   | 5 |
|   | 1 |   |   | 2 | 7 | 3 |   |   |
|   |   |   | 8 |   |   |   | 7 |   |
|   |   | 4 |   |   |   |   |   |   |
| 5 | 3 |   |   | 4 |   | 1 | 8 |   |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   |   |   |   |   |   |   |   |   |
|---|---|---|---|---|---|---|---|---|
| 9 | 8 | 6 | 1 | 6 | 9 | 7 | 2 | 2 |
| 6 | 2 | 9 | 2 | 6 | 7 | 9 | 1 | 8 |
| 2 | 1 | 7 | 8 | 2 | 9 | 9 | 6 | 6 |
| 8 | 9 | 2 | 7 | 1 | 6 | 2 | 6 | 9 |
| 2 | 7 | 6 | 9 | 9 | 2 | 1 | 8 | 6 |
| 6 | 9 | 1 | 6 | 8 | 2 | 2 | 7 | 9 |
| 7 | 6 | 9 | 2 | 9 | 8 | 6 | 2 | 1 |
| 9 | 2 | 8 | 6 | 7 | 1 | 6 | 9 | 2 |
| 1 | 6 | 2 | 9 | 2 | 6 | 8 | 9 | 7 |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   |   |   |   |   |   |   |   |   |
|---|---|---|---|---|---|---|---|---|
| 8 | 1 | 9 | 7 | 2 | 2 | 6 | 6 | 9 |
| 2 | 6 | 9 | 9 | 6 | 1 | 7 | 8 | 2 |
| 6 | 2 | 7 | 6 | 8 | 1 | 2 | 9 |   |
| 7 | 8 | 6 | 2 | 2 | 9 | 9 | 1 | 6 |
| 9 | 9 | 6 | 1 | 8 | 7 | 2 | 2 | 6 |
| 1 | 2 | 2 | 9 | 6 | 6 | 9 | 7 | 8 |
| 2 | 9 | 2 | 6 | 7 | 6 | 8 | 9 | 1 |
| 6 | 7 | 1 | 8 | 9 | 9 | 2 | 6 | 2 |
| 9 | 6 | 8 | 2 | 1 | 2 | 6 | 9 | 7 |